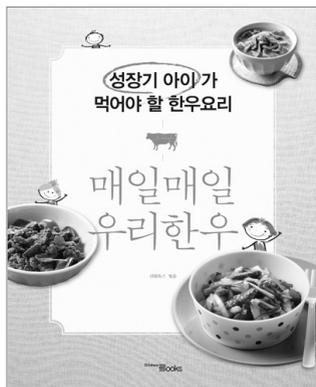


## 한우

### 한우자조금, 70가지 한우요리책 〈매일매일 우리한우〉 출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와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한우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성장기 아이가 먹어야 할 요리 레시피가 담긴 ‘매일매일 우리한우’를 출간했다. ‘매일매일 우리한우’는 아이의 먹을 거리에 대해 고민하는 엄마들이 읽어야 하는 책으로 성장하는 아이의 영양과 입맛까지 고려한 70가지의 한우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책에 소개된 요리는 아이의 키가 쑥쑥 크는 한우요리, 입맛 없는 아이를 위한 한우요리, 머리가 좋아지는 한우요리, 감기 예방에 좋은 한우요리, 원기보충에 좋은 한우요리, 눈이 좋아지는

한우요리 60가지와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날에 나들이를 위한 한우 도시락 10가지 등이다.

## 한돈

###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 캠페인 전개



아름다운 한돈농장을 위해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이 공동으로 힘을 모으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봄을 맞아 경기도 이천 소재 옥황농장에서 축사주변 환경 개선 및 깨끗한 한돈 농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기 캠페인’을 전개, 산림청에게 기증받은 조경수 묘목 1만 그루를 경기도 내 한돈농가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4월 1일부터 경기도 내 한돈 농가 100개를 선정하여 농가당 총 100그루의 스트로브 잣나무와 측백나무 등을 분양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아름다운 한돈농장 선발대회'와 연계하여 시범 사업에 선정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한돈 농장 환경개선이 앞장 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나무심기가 축사 환경도 정비하고 방역에도 한층 더 신경 쓰는 등 농장 전체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의 한돈 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축산뉴스 김기슬 기자 [2014. 04. 02]

## 양계

### 토종닭협회, 동대문 굿모닝시티 앞서 소비촉진 캠페인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4월 11일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AI 안전성 홍보 및 토종닭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 등이 진행되었다. AI에 대해서는 리플렛을 통해 AI 전과 과정과 닭, 계란, 오리 등 가금산물을 먹어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AI에 대해 연중 상시방역을 실시하고 발생시 즉시 살처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염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토종닭은 불포화지방산과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담백한 맛과 육향의 풍미가 있으며 영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무료시식 행사에서는 초계탕, 토종닭 바비큐 등 각종 요리가 선보여졌으며, 유명 B-Boy팀과 인기밴드인 로맨틱펀치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됐다. 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AI를 겪으면서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는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며 “토종닭은 예로부터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요리로서 뛰어난 맛을 자랑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4. 04. 16]

## 낙육협, 올해부터 'K-MILK 인증' 사업 본격 추진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가 소비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K-MILK'인증 사업이다. K-MILK인증이란, 국내산 우유만을 사용한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유제품에 대하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국산우유 사용 인증을 보증하고,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제품을 의미한다. 협회는 전체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산 우유인 백색시유의

소비는 줄고, 치즈 등 수입유제품의 소비량 급증에 따른 자급률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말 인증마크 개발을 완료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K-MILK 인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낙농산업 보호와 국산우유 사용을 제고를 위한 국산우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수입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제품이 국산원료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업계 및 식품업계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협회 내부적으로는 인증사업단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향후 생산, 제조, 판매, 정부, 소비, 학계, 언론, 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증기준은 우유 및 유제품 성분 중 원유사용분에 대해 100% 국산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우유 및 유제품에서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손정렬 회장은 “K-MILK인증 사업은 소비자에게는 알권리를 충족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사용업체에는 차별화된 제품생산을 통해 소비확대와 기업수익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낙농가에게는 안정적인 국내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가들의 자구노력을 알려 가치 낙농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2014. 03. 31]

## 양봉

### 충남양봉인 한마음대회 ‘대성황’



충남양봉인의 축제 한마당인 ‘2014 양봉인 한마음대회<사진>’가 지난 4월 4일 논산둔치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송석두 충남행정부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등 내빈들과 한국양봉협회 조균환 회장 및 회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인의 화합을 다지고 양봉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충남도지회를

만들기로 결의를 다졌다.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가 주관하고 한국양봉협회와 한국양봉농협 후원으로 열린 양봉인 대회에서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말에 꿀맛같다, 밀월관계라는 말이 있듯이 꿀은 동서고금에서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으로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역할을 해왔다”며 “양봉인들은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양봉산업발전에 주역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균환 양봉협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벌들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이번행사가 충남양봉인의 화합을 다지고 양봉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로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2014. 04. 14]

## 사슴

### 제7회 ‘사슴의 날’ 행사, 국산 녹용 우수성 홍보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가 국내 녹용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5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 입구에서 ‘제7회 사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슴협회 회원 200여명은 등산객들에게 녹용차와 함께 손수건과 볼펜 등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행사장은 녹



용차를 맛보기 위해 모여든 등산객들로 시끌벅적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등산객은 “사슴의 날이 있는지 오늘 알게 됐다”며 “녹용차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기회가 있으면 국내산 녹용이 들어간 식품을 구입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동안 서울 명동에서 진행해오던 ‘사슴의 날’ 행사를 올해는 계룡산에서 개최했다.

협회에 따르면 요즘 유통되고 있는 녹용의 80%가 외국산이고 국내산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녹용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봄철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계룡산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정유환 한국사슴협회장은 “예상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국내산 녹용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려 녹용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최문희 기자 [2014. 04. 09]

